

# 해외에너지 정책동향

## EU, 모든건물에 '제로 에너지' 개념 적용 추진

- EU 의회는 기존 '건물에너지 효율 지침'을 개정하여 신축 및 기존 건물을 대상으로 '제로 에너지' 개념을 적용할 계획임.
- '제로 에너지'는 태양광이나 히트펌프 등을 활용하여 건물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보다 많은 에너지를 건물 자체에서 생산한다는 개념임.
- 모든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'19년 이후부터 적용하며, 기존 건물에 대해서도 회원국별로 '15년과 '20년을 목표연도로 각각 건물의 '제로 에너지' 적용 비율을 설정해야 함.
- 회원국들은 '11년 중반까지 건물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대출 및 세제혜택 등 재정 대책을 수립해야 함.
- EU집행위는 '유럽지역개발기금(ERDF)의 에너지효율 관련 기금 증액, 에너지효율기금 창설, 관련 부가가치세 감면' 등과 같은 추가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제안할 계획임.

(Parlement Europeen, 2009.4.23)

## 프랑스, 에너지절약증서제도(ESC) 도입 효과 입증

- 프랑스는 '06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에너지절약증서제도를 통해 현재까지 42.9TWh의 에너지절약을 달성하여 동 제도 도입의 긍정적 효과를 입증함.

- 총 170개 기관 및 기업에 740개의 절약증서를 발부하였으며, 에너지절약의 기여율은 주거용 건물 86.5%, 상업용 건물 4.5%, 산업부문 7.6%, 기타부문 1.3%로 조사됨.
- 프랑스 정부는 1차 기간('06년~'09년)동안 총 에너지 소비량의 0.2%인 54TWh를 절약 목표로 설정하여 약 80%의 목표달성을 이룸.
- 에너지절약증서제도는 영국에서 시행중인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으로, 에너지생산·유통 관련기관에 대해 절약증서의 획득을 의무화하고 자체적인 절약제도 구축을 유도하는 제도임.
- 동 기관들은 에너지절약을 통해 증서를 획득하거나 다른 기관 및 기업으로부터의 증서 구입을 통해 목표달성이 가능하며, 미달시에는 kWh당 2센트의 벌금이 부과되고 목표량을 초과한 증서에 대해서는 시장거래가 가능함.

(Actu-Euvironnement 2009.4.29)

## 중국, 탄소세 부과 검토

- 중국 재무부는 총 온실가스배출량 감축을 위해 환경세 징수에 관한 영향 및 효과의 조사보고서를 준비하고 있음.
- 조사대상에는 CO<sub>2</sub>배출뿐만 아니라 이산화황, 폐수, 암

모니아에 대한 환경세 부과도 포함될 예정.

- 동 조사사업은 환경세 제정 과정의 초기 단계에 불과하지만, 중국은 향후 세계기후협약을 논의하기 위한 12월 코펜하겐 세계기후변화회의를 앞두고 긍정적인 변화로 해석될 것으로 기대.

(Reuters, 2009.5.4)

조금으로 차등 지원, 동 제도의 수혜를 받는 가구에서 약 25% 에너지절약 효과가 예상됨.

- 동 지원제도는 에너지절약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중인 무이자 환경대출(eco-PTZ), 세액공제와 중복수혜가 가능함.

(Le Figaro, 2009.5.14)

#### 프랑스,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효율개선 지원강화

- 프랑스는 경기부양의 일환으로 '09년 1월부터 시작된 저소득층 주택 대상 에너지효율개선 지원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임
- 프랑스는 동 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현재까지 약 9,000 가구에 2,200만 유로의 보조금을 지원, 제도 활성화를 위해 5월 18일부터 대대적인 광고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임.
- 또한 보조금의 70%를 공사착수 시점에 지급하도록 제도를 수정하여 지원을 강화하였으며, 연간 5만여 가구 대상 보조금 지원을 목표로 설정함.
- 동 제도는 지붕의 보온·단열 공사 또는 노후 보일러 교체 등 주택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공사비용을 지원함.
- 지원 대상이 되는 공사규모는 1,500~13,000 유로로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공사비의 약 20~35%를 보

#### 일본, 전력사 국내 CDM 사업신청 승인

- 일본 경제산업성은 5월 29일 도쿄전력 외 2개사가 각각 신청한 국내 CDM사업을 승인하였으며, 동 전력회사들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해 향후 연간 총 6,010톤의 CO<sub>2</sub>감축이 기대됨.
- 도쿄전력은 치바시에 위치한 병원에 히트펌프의 도입과 공조설비 교체사업으로 연간 625톤의 CO<sub>2</sub>감축, 목재공장의 증유를 사용하는 보일러 대신 목질계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연료대체로 연간 743톤의 CO<sub>2</sub>감축, 목재건조용 바이오매스 보일러를 통해 연간 486톤의 CO<sub>2</sub>감축, 장미농원에 난방용 히트펌프 교체로 연간 733톤의 CO<sub>2</sub>감축을 추진함.
- 간사이전력은 교토대학에 조명설비 교체와 고효율변압기 교체사업으로 연간 73톤의 CO<sub>2</sub>감축, 교토대학의 원자로실험실에 증유사용 보일러를 교토대학 부속병원에 보일러·공조설비·조명설비 교체와 태양광발전설비

설치 등으로 연간 672톤의 CO<sub>2</sub>감축, 장미농원에 공조 설비 교체로 연간 656톤의 CO<sub>2</sub>감축을 추진함.

- 시코쿠전력은 염색공장의 증유 보일러를 가스로의 연료대체 사업으로 연간 1,527톤의 CO<sub>2</sub>감축을 기대함. (電氣新聞, 2009.6.1)

**일본, 온실가스 감축목표 '20년까지 '05년 대비 15%로 확정**

- 일본 아소 총리는 6월 10일 '20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감축목표를 '05년 대비 15%로 확정하는 것으로 발표하였음.
- 온실가스 15% 감축목표는 현행 교토의정서에서 인정하고 있는 CO<sub>2</sub>의 해외 배출권 구매분 및 삼림에 따른 흡수분을 포함시키지 않고 자국내의 순수 감축분만을 대상으로 산정한 것임.
- 감축목표의 달성에 따라 '30년에 약 25%, '50년에 약 70% 감축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음. (時事通信, 2009.6.10)

**일본, 에코포인트제 실시효과 추산**

- 일본 경제산업성은 최근 5월 15일부터 실시 중인 에코포인트제의 CO<sub>2</sub>감축 및 생산유발효과를 추산하였

음. 에코포인트제는 정부가 소비자에게 에너지절약형 가전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구입가격의 5% 정도를 보조하는 제도임.

- 보조대상제품에 포함되는 에어컨, 냉장고, TV는 10년 전과 비교해서 약 40%정도의 에너지가 절약됨. 이러한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이용할 경우 가정부문 전력소비량의 약 4%가 절약되고, 연간 약 400만 톤의 CO<sub>2</sub>가 감축됨.
- 에코포인트제 시행에 대한 경제효과는 가전산업을 포함한 원재료 및 유통등의 관련 산업 전체에서 약 4조 엔 규모의 생산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되며, 이를 통해 약 12만 명의 고용창출이 기대됨.
- 상기 추산결과는 에코포인트제 실시로 인해 보조대상 제품 약 3,000만 대가 보급된다는 가정을 전제하고 있음. (日本經濟新聞, 2009.6.8)

**중국, '15년까지 에너지효율 17% 개선목표 검토**

- 중국 정부는 경제정책의 운영방침을 나타내는 제12차 5개년 계획('11~'15년)에 국내총생산(GDP)당 에너지소비를 17% 개선하는 목표를 검토중이며, 현 계획은 '06년부터 5년간 에너지효율 20% 향상을 제시하고 있음.
- 중국은 경제성장에 따라 석탄 등의 연소로 발생한 CO<sub>2</sub>배출량의 급증으로 화석에너지사용량의 CO<sub>2</sub>배출량이 '00년 30.78억 톤에서 '06년 56.48억 톤으로

늘어났음. 이는 세계 전체 에너지사용량의 CO<sub>2</sub>배출량 20%에 해당하는 것이며, 중국은 미국과 대등한 수준의 세계 최대 배출국 자리에 올라있음.

- 선진국은 '13년 이후 포스트 교토체제에 중국 등의 개도국도 온실가스 배출감축 의무에 동참을 요구하는 입장이며, 중국 정부는 '13년 이후 포스트 교토체제에 에너지효율 개선을 통해 에너지절약과 온난화대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임.
- 한편 중국 정부는 '07년 2월에 발표한 '기후변화국가 평가보고'에서 에너지절약 추진, 신재생에너지 및 원자력 이용확대, 산림조성 등을 통해서 GDP당 탄소배출량을 '20년까지 '00년 대비 40%이상 감축, '50년까지 '00년 대비 80% 이상 감축하는 중장기목표를 밝힌바 있음.

(時事通信, 2009.6.17)

#### 영국 정부, 공공부문 에너지효율에 대한 투자 지원

- 영국 정부가 지난 달 발표한 2009 예산에서 에너지효율 기술에 대한 5,150만 파운드의 무이자 대출자금을 공공부문에서 사용하도록 지원하고 있음. 동 자금은 용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연간 1,400만 파운드의 비용 절감효과가 예상됨.

(Energy Efficiency News, 2009.6.11)

#### 대만,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는 신재생에너지법안 통과

- 대만 의회는 300억 타이완달러 규모의 투자를 포함하는 신재생에너지 법안을 통과시킨. 동 법안은 향후 20년 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현재 2,278MW에서 6,500~10,000MW로 확대하는 목표를 담고 있음.
- 투자액 중 150억 타이완달러는 태양에너지, 풍력, 바이오연료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사용될 예정이며, 탄소배출 감축과 인력 교육에 각각 11.5억과 2억 타이완달러가 사용될 예정임.
- 신재생에너지 공급업자들은 전력이격으로 kW당 8타이완달러가 적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, 현재는 kW당 2타이완달러에 Taiwan Power Co.로 전력을 판매하고 있음.
- 동 법안은 CO<sub>2</sub>배출량을 '16년까지 '08년 수준으로, '25년까지 '00년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대만 정부계획의 일환이며, 청정에너지업계는 1~2년 내 1,000억 타이완달러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.

(ViewsWire, 2009.6.15)